

강북구 맞벌이가정 자녀돌봄 실태조사결과¹⁾

2020년 8월



- 1) 본 조사결과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아, 성경하(지도교수: 고선강)의 2020 학부생하계연구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본 결과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2020 열린마루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열린 대화 토크톡’” (9월 12일, 9월 24일 2차례 개최)에서 활용할 계획임. 이를 통해 강북구 관내 맞벌이 가족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 서비스 반영 또는 정책 반영에 활용하고자 함.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며 영, 유아 자녀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모집단으로 임의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질문지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아와 성경하(지도교수: 고선강)에 설계, 작성되었으며, 자료수집은 온라인 플랫폼 서베이 몽키(survey monkey)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모집은 센터 회원 뿐만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센터 등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17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54부 중 자격박탈 및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1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적합성: 맞벌이가정 여부

조사대상자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강북구 거주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표 1> 참조), 159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1> 맞벌이가정 여부

(N=160)

문항	항목	N (%)
귀하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초등 저학년 이하(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입니까?	예	159명 / 100%
	아니오	0명 / 0%
	건너뚱	1명 / 0%

(2) 조사대상자의 성별

조사대상자는 91%가 여성(145명)으로(<표 2> 참조), 본 조사결과는 맞벌이가정

내 남편보다는 아내 입장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성별

(N=160)

문항	항목	N (%)
귀하의 성별은 무엇 입니까?	남성	15명 / 9.38%
	여성	145명 / 90.63%

(3) 조사대상자의 연령

조사대상자는 주로 40대(86명, 53.8%), 30대(69명, 43.1%)로, 주로 3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표 3> 참조)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연령

(N=160)

문항	항목	N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2명 / 1.25%
	30대	69명 / 43.13%
	40대	86명 / 53.75%
	50대 이상	3명 / 1.88%

(4)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의 근무 형태

조사대상자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표 4> 참조), 전일제(99명, 61.9%), 시간제(53명, 3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표 5> 참조), 전일제(147명, 91.9%)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근무형태

(N=160)

문항	항목	N (%)
귀하의 근무 형태는 무엇입니까?	일하고 있지 않음	0명 / 0%
	시간제	53명 / 33.13%
	전일제	99명 / 61.8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8명 / 5.00%

<표 5> 조사대상자 배우자의 근무 형태

(N=160)

문항	항목	N (%)
귀하의 배우자의 근무 형태는 무엇입니까?	일하고 있지 않음	0명 / 0%
	시간제	8명 / 5.00%
	전일제	147명 / 91.8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5명 / 3.13%

(5) 조사대상자의 자녀수와 연령

조사대상자의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표 6> 참조), '2명'(84명, 52.5%), '1명'(64명, 40.0%) 순으로 대다수가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표 7> 참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59명, 36.9%), '만 3세 이상~만 5세 미만'(41명, 25.6%) 순으로 대다수가 영유아기 자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자녀수

(N=160)

문항	항목	N (%)
귀하의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자녀 없음	0명 / 0%
	1명	64명 / 40.00%
	2명	84명 / 52.50%
	3명	10명 / 6.25%
	4명 이상	2명 / 1.25%

<표 7> 조사대상자 자녀의 연령

(N=160)

문항	항목	N (%)
귀하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만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만 1세(12개월) 미만	4명 / 2.50%
	만 1세 이상 ~ 만 3세(36개월) 미만	24명 / 15.00%
	만 3세 이상 ~ 만 5세 (60개월) 미만	41명 / 25.62%
	만 5세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전	32명 / 20.00%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59명 / 36.88%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	0명 / 0%
	중학생 이상	0명 / 0%

(6) 조사대상자의 강북구 내 거주 지역과 거주기간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표 8> 참조), '인수동, 수유동(1동~3동)'(59명, 36.9%), '송천동, 미아동'(36명, 22.5%), '삼각산동, 삼양동'(34명, 21.3%) 순으로 지역별 분포도가 고르게 표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북구 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표 9> 참조), 과반수 정도가 '5년 이상~10년 미만'(66명, 41.3%)으로 나타났으며, '15년 이상'도 26명(16.3%)로 나타났다.

<표 8> 맞벌이가정의 거주 지역

(N=160)

문항	항목	N (%)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이동	11명 / 6.88%
	인수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59명 / 36.88%
	송천동, 송중동, 미아동	36명 / 22.50%
	번1동, 번2동, 번3동	30명 / 12.50%
	삼각산동, 삼양동	34명 / 21.25%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음	0명 / 0%

<표 9> 맞벌이가정의 강북구 거주 기간

(N=160)

문항	항목	N (%)
귀하 가족이 강북구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년 미만	8명 / 5.00%
	1년 이상 ~ 5년 미만	33명 / 20.63%
	5년 이상 ~ 10년 미만	66명 / 41.25%
	10년 이상 ~ 15년 미만	27명 / 16.88%
	15년 이상	26명 / 16.25%

(7) 조사대상자의 향후 타 지역으로 이사 고려 여부

향후 10년 안에 강북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10> 참조), '아니오'가 37.6%(6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렇다'가 31.9%(51명)와 '아직 잘 모르겠다'가 49명(30.6%)으로 60% 정도가 향후 강북구에서 이전할 수 있는 변동 인구임을 알 수 있다.

이중 '향후 10년 안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51명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11> 참조), 과반수가 '강북구 내 보육 및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27명, 53%)를 꼽았다.

<표 10> 맞벌이가정의 이사 여부

(N=160)

문항	항목	N (%)
향후 10년 안에 강북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향후 10년 안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음	51명 / 31.87%
	아니오, 향후 10년 안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없음	60명 / 37.50%
	아직 잘 모르겠음	49명 / 30.63%

<표 11> 맞벌이가정의 타지역 이사 이유

(N=51)

문항	항 목	N (%)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안에 강북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북구 내 보육 및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27명 / 52.94%
	나와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하여	13명 / 25.49%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6명 / 11.76%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5명 / 9.80%

2)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공백시간과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 형태

(1) 맞벌이가정의 부모 돌봄 공백시간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공적기관)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12> 참조), '2시간 이상~3시간 미만'(42명, 26.3%)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4시간 이상' 역시 32명(20.0%)로 꽤 많은 수의 맞벌이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돌봄 공백은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맞벌이가정의 부모 돌봄 공백시간

(N=160)

문 항	항 목	N (%)
귀하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미만	31명 / 19.38%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3명 / 20.6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42명 / 26.25%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2명 / 13.75%
	4시간 이상	32명 / 20.00%

※ '부모 돌봄 공백시간'이란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

(2) 영, 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형태

최근 6개월 이내 이용한 자녀돌봄서비스 형태를 조사한 결과(<표 13> 참조), '유치원/어린이집'(97명, 60.6%), '조부모 및 친인척'(66명, 41.3%), '아이돌보미'(24명, 15%) 순으로 나타나,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공적 서비스 외 사적 서비스(조부모 등)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맞벌이가정의 영·유아기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N=160)

문항	항 목	N (%)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귀하가 이용한 자녀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들입니까? (중복가능)	영유아 자녀 없음	29명 / 18.13%
	유치원/어린이집	97명 / 60.62%
	지역아동센터	4명 / 2.50%
	아이돌보미(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명 / 15.00%
	베이비시터(사설기관), 가사도우미, 양육도우미	10명 / 6.25%
	공동육아나눔터	4명 / 2.50%
	조부모 및 친인척	66명 / 41.25%
	동네 이웃의 도움(예, 육아품앗이, 잠깐 맡기기)	14명 / 8.75%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3명 / 1.88%

(3)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형태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한 자녀돌봄 서비스 형태를 조사한 결과(<표 14> 참조), 38명(23.8%)이 '학원(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을 꼽았고, 그 뒤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32명, 20.0%), '초등돌봄교실'(30명, 18.8%)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자녀의 경우 사설 학원 또는 초등학교 내 방과 후 교실 및 돌봄교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맞벌이가정의 초등 저학년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N=160)

문항	항 목	N (%)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귀하가 이용한 자녀돌봄서비스는 어떤 것들입니까? (중복가능)	초등 저학년 자녀 없음	64명 / 40.00%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수업으로 선택하는 방식)	32명 / 20.00%
	초등돌봄교실(방과 후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제공)	30명 / 18.75%
	지역아동센터	3명 / 1.88%
	아이돌보미(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명 / 6.25%
	베이비시터(사설기관), 가사도우미, 양육도우미, 시간제 방문 선생님 등	0명 / 0%
	학원(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38명 / 23.75%
	동네 이웃의 도움(예, 육아품앗이, 잠깐 맡기기)	16명 / 10.00%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3명 / 14.37%

3) 강북구 맞벌이 가정 내 자녀돌봄 관련 역할 분담

(1)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에 따른 어려운 점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 결과 (<표 15> 참조),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학습, 가정교육 등)'(103명, 64.4%),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절대적 부족'(95명, 59.4%),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듭'(66명, 4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의 어려운 점

(N=160)

문항	항 목	N (%)
귀하가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돌보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주된 이유를 3가지 선택해 주세요.	자녀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 부족	95명 / 59.38%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학습, 가정교육 등)	103명 / 64.38%
	자녀와 의사소통 어려움	30명 / 18.75%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성장발달에 적합한 양육 방법을 잘 모름	29명 / 18.13%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31명 / 19.38%
	부부 간 자녀 양육 방식의 불일치	27명 / 16.88%
	자녀 돌봄 제공자(아이돌보미,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 등)와의 소통 어려움, 갈등	22명 / 13.75%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부족	46명 / 28.75%
	자녀를 돌보는 기술(예, 식사, 수면, 목욕, 놀이 등) 부족	22명 / 13.75%
	자녀를 돌보는 일 자체가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이 듭.	66명 / 41.25%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9명 / 5.63%	

(2)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에 관한 부부의 역할분담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돌봄을 부부가 어느 정도 분담하는지 질문한 결과(<표 16> 참조), 과반수 이상(95명, 59.4%)이 **‘대부분 내가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적으로 내가 한다’ 역시 13명(8.1%)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맞벌이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돌봄을 주로 아내인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26.9%(43명)은 **‘부부가 똑같이 하는 편’**이라고 하여 자녀돌봄에 있어 어느 정도 양성평등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부도 분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6>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분담

(N=160)

문항	항 목	N (%)
귀하 부부는 전반적으로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돌보는 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배우자가 함	2명 / 1.25%
	대부분 배우자가 하는 편	7명 / 4.38%
	부부가 똑같이 하는 편	43명 / 26.88%
	대부분 내가 하는 편	95명 / 59.38%
	전적으로 내가 함	13명 / 8.13%

(3)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활용 내용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활동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표 17> 참조), '놀아주기' 영역만 '부부가 똑같이 한다'(66명, 41.3%)가 높았고, 나머지 모든 영역(자녀 밥 먹이기, 자녀 목욕시키기, 자녀 학습지도, 책 읽어주기, 자녀 재우기, 아플 때 간호하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소통, 자녀 필요 물품 구매) 모두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내가 한다'고 응답하여, 맞벌이 가정 내 자녀돌봄에 있어 여전히 한쪽 배우자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한쪽 배우자의 역할 과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곤함으로 인해 가족관계 또는 부부관계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7> 맞벌이가정의 부모-자녀 활동 내용

문항)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와 관련된 아래의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N=160)

항목	모두 배우자가 함	대부분 배우자가 하는 편	똑같이 하는 편	대부분 내가 하는 편	모두 내가 함	해당 없음	가중 평균
	N(%)						
자녀 밥 먹이기	4명 (2.50%)	5명 (3.13%)	31명 (19.38%)	75명 (46.88%)	40명 (25.00%)	5명 (3.13%)	3.92
자녀 목욕 시키기	3명 (1.88%)	18명 (11.25%)	43명 (26.88%)	52명 (32.50%)	35명 (21.88%)	9명 (5.63%)	3.65
자녀 학습지도	2명 (1.25%)	11명 (6.88%)	23명 (14.37%)	78명 (48.75%)	45명 (28.13%)	1명 (0.63%)	3.96
책 읽어주기	1명 (0.63%)	14명 (8.75%)	37명 (23.13%)	59명 (36.88%)	43명 (26.88%)	6명 (3.75%)	3.84
놀아주기	1명 (0.63%)	18명 (11.25%)	66명 (41.25%)	63명 (39.38%)	11명 (6.88%)	1명 (0.63%)	3.41
자녀 재우기	0 (0%)	11명 (6.88%)	32명 (20.00%)	64명 (40.00%)	49명 (30.63%)	4명 (2.50%)	3.97
아플 때 간호하기	0 (0%)	4명 (2.550%)	44명 (27.50%)	65명 (40.63%)	46명 (28.75%)	1명 (0.63%)	3.9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소통	2명 (1.25%)	10명 (6.25%)	17명 (10.63%)	51명 (31.87%)	79명 (49.38%)	1명 (0.63%)	4.23
자녀 필요 물품 구매	1명 (0.63%)	14명 (8.75%)	28명 (17.50%)	61명 (38.13%)	56명 (35.00%)	0명 (0%)	3.98

4)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코로나 19 확산 이전과 이후 돌봄에 대한 변화와 대응

(1) 코로나 19 확산 이전과 이후 맞벌이가정의 부모 돌봄 공백 시간 변화

<표 18>과 같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 돌봄 공백시간이 늘어났다'가 100명(62.5%)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돌봄 공백시간에 변화가 없다'는 55명(34.4%)으로 나타났다.

<표 18>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맞벌이가정의 자녀의 부모 돌봄 공백시간 변화

(N=160)

문항	항 목	N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부모 돌봄 공백시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부모 돌봄 공백시간이 늘어났다	100명 / 62.50%
	부모 돌봄 공백시간에 변화가 없다	55명 / 34.38%
	부모 돌봄 공백시간이 줄어들었다	5명 / 3.13%

※ '부모 돌봄 공백시간'이란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

(2) 맞벌이가정의 코로나19확산 이전과 현재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표 19>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그렇지 않다'(82명, 51.3%)고 하였으며, 48.8%(78명)는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코로나 19 이후 부모 돌봄 공백시간이 늘어난 맞벌이 가족의 경우 돌봄 서비스 변화가 없을 경우 공백 시간에 대한 자녀돌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표 19> 맞벌이가정의 코로나19확산 이전과 현재 자녀 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N=160)

문항	항 목	N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음	78명 / 48.75%
	아니요, 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없음	82명 / 51.25%

(3)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변화 정도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20> 참조), '예전보다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어났다'(22명, 28.2%), '예전보다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20명, 25.6%)가 비슷하게 나타나, 늘어난 경우와 줄어든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역시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표 20>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내용

(N=78), 건너뛴 수=82

문항	항 목	N (%)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위한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어났다	22명 / 28.21%
	예전보다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졌다	7명 / 8.97%
	예전보다 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하는 종류가 모두 많아졌다	10명 / 12.82%
	예전보다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	20명 / 25.64%
	예전보다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의 종류가 적어졌다	4명 / 5.13%
	예전보다 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이용하는 종류가 모두 적어졌다	15명 / 19.23%

(4) 맞벌이 가정의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확산 이후 이용하게 된 돌봄 서비스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용하게 된 맞벌이 가정의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21> 참조), 과반수 이상이 '조부모 및 친인척'(97명, 57.5%)을 꼽았다. 그 뒤로 '학원(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25명, 15.6%), '어린이집, 유치원(21명, 13.1%)', '이웃과 육아 품앗이'(19명, 11.9%)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 돌봄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긴급돌봄지원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감염 등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표 21> 맞벌이가정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용하게 된 돌봄서비스

(N=160)

문항	항 목	N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용하게 된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돌봄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세요.	조부모 및 친인척	97명 / 57.50%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17명 / 10.63%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가사도우미, 사설 베이비시스터 등)	7명 / 4.35%
	초등돌봄교실	15명 / 9.38%
	지역아동센터	2명 / 1.25%
	어린이집, 유치원	21명 / 13.13%
	학원(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25명 / 15.63%
	시간제 사설 돌봄 서비스(등하원 서비스, 시간제 방문튜터 등)	7명 / 4.38%
	이웃과 육아 품앗이	19명 / 11.8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1명 / 19.38%	

(5) 코로나 19 확산 이후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보는 시간의 변화 정도

<표 22>에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 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 71%(113명)가 '자신의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의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표 23> 참조), 과반수 이상(82명, 51.3%)이 '자녀 돌봄 시간에 변화가 없다'고 하여 코로나 확산 이후 조사대상자의 대상자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아내(어머니)의 역할이 훨씬 과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가정의 응답자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 변화

(N=160)

문항	항 목	N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가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돌보는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	113명 / 70.63%
	자녀 돌봄 시간에 변화가 없다	39명 / 24.38%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었다	8명 / 5.00%

<표 23>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가정의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 변화

(N=160)

문항	항 목	N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의 배우자가 자녀(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돌보는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	74명 / 46.25%
	자녀 돌봄 시간에 변화가 없다	82명 / 51.25%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었다	4명 / 2.50%

(6) 코로나 19 확산 이후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에 대한 부부간 분담 관련 갈등 정도

실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자녀양육 돌봄의 공백시간도 늘어나고, 본인의 자녀돌봄 시간도 배우자에 비해 늘어났다고 인식하는 조사대상자가 많은 점에 비추어, 부부간 자녀양육 분담 관련해서 갈등이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표 24> 참조), 부부간 갈등이 '없었다'(81명, 50.7%), '있었다'(79명, 49.4%)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 주었다. 코로나 19 이후 부부간 갈등이 생겨난 가족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4>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분담 관련 갈등

(N=160)

문항	항 목	N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간 분담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 갈등이 있었음	79명 / 49.38%
	아니오, 갈등이 없었음	81명 / 50.63%

5) 맞벌이 가정의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1) 센터 운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

<표 25>와 같이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서비스(가족 품앗이 포함)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25> 참조), '이용한 경험이 없다'(102명, 63.8%)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이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질문한 결과(<표 26> 참조), '만족'(25명, 43.1%), '매우 만족'(13명, 22.4%)으로 과반수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강북구 내 공적 자녀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프로그램 (가족품앗이) 등) 이용 경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 (N=160)

문항	항목	N (%)
강북구 내 공적 자녀 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프로그램 등) 이용경험	이용한 경험이 있다.	58명 / 36.25%
	이용한 경험이 없다.	102명 / 63.75%

<표 26>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경험의 전반적인 만족도

(N=58)

문항	항목	N (%)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경험의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2명 / 3.45%
	불만족	4명 / 6.90%
	보통이다	14명 / 24.14%
	만족	25명 / 43.10%
	매우 만족	13명 / 22.41%

센터 운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서비스 이용 시 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27> 참조), '거리와 이동 문제'(14명, 24.1%), '이용시간이 맞지 않음'(12명, 20.1%), '서비스 제공 시설 부족'(11명, 19%) 순으로 나타나 거리와 이동 문제로 인해 센터 내(번1동 소재)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현재 1개소 운영)를 방문하는 어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맞벌이 가족을 위한 운영 시간 확대(야간 또는 주말 확대)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7>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주요 어려움(중복 선택 가능)

(N=58)

문항	항 목	N (%)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주요 어려움	어려움이 없었음	22명 / 37.93%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내용이 마음에 안듦	5명 / 8.62%
	서비스 제공자, 프로그램 참여자와 소통 어려움	4명 / 6.90%
	서비스 제공 시설 부족	11명 / 18.97%
	거리와 이동 문제	14명 / 24.14%
	예약이 어려움	6명 / 10.34%
	이용시간이 맞지 않음	12명 / 20.69%
	신청절차가 번거로움	10명 / 17.24%
	서비스 비용이 부담됨	6명 / 10.3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6명 / 10.34%	

또한 센터 운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 28> 참조), '운영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46명, 45.1%), '해당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28명, 27.5%)로 나타나, 맞벌이 가족을 위한 탄력적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8> 강북구 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없는 이유(중복 선택 가능)

(N=102)

문항	항 목	N (%)
강북구 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없는 이유	운영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46명 / 45.10%
	거리가 멀어서	16명 / 15.69%
	자녀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1명 / 10.78%
	해당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28명 / 27.45%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명 / 4.90%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8명 / 17.65%

(2)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실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29> 참조), 과반수 이상이 '들어본 적 있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다'(93명, 53.1%)고 하였으며, 특히 '몰랐지만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28명, 17.5%)고 하여 맞벌이 가족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공동육아나눔터 인지 여부

(N=160)

문항	항 목	N (%)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전, 공동육아나눔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며 이용해 본적 있다	15명 / 9.38%
	들어본 적 있지만 이용해 본적 없다	93명 / 58.13%
	몰랐지만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	28명 / 17.50%
	몰랐고, 추후 이용할 의향이 없다	24명 / 15%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30> 참조), 과반수가 '보통이다'(8명, 53.3%), '만족한다'(4명, 2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0>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경험의 전반적인 만족도

(N=15)

문항	항 목	N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경험의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족	0명 / 0%
	불만족	0명 / 0%
	보통이다	8명 / 53.33%
	만족	4명 / 26.67%
	매우 만족	3명 / 20%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이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31> 참조), '도움이 되었다'(9명, 60%), '도움이 되지 않았다'(6명, 40%)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족의 경우 도움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표 31>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과 돌봄 공백 해소 여부

(N=15)

문항	항 목	N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이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	네, 도움 되었다	9명 / 60%
	아니오, 도움이 되지 않았다.	6명 / 40%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 32> 참조), '처음 들어보는 시설이라 낯설어서'(22명, 23.7%),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20명, 21.5%) 순으로 나타나 향후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공동육아나눔터 미이용 사유

(N=93)

문항	항 목	N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해 본 적 없는 이유	운영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17명 / 18.28%
	접근성이 좋지 못하여서	18명 / 19.35%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1명 / 11.83%
	처음 들어보는 시설이라 낯설어서	22명 / 23.66%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20명 / 21.5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5명 / 5.38%

(3) 공동육아나눔터 내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 여부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내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표 33> 참조), 78.8%(126명)가 '이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3>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 이용 의향

(N=160)

문항	항 목	N (%)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특화 서비스 이용 의향	이용할 것이다	126명 / 78.75%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34명 / 21.25%

6) 맞벌이 가정의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34> 참조),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해 본 적 없다'(58명, 36.3%), '들어본 적 있으며, 이용해 본 적 있다'(57명, 35.7%) 순으로 약 70% 정도가 센터를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정도는 반반으로 비슷하게 없다,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몰랐지만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가 32명(20%)으로 나타나, 센터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성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N=160)

문항	항 목	N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와 이용 정도	들어본 적 있으며 이용해본 적 있다	57명 / 35.63%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해본 적 없다	58명 / 36.25%
	몰랐지만, 추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	32명 / 20%
	몰랐고, 추후 이용할 의향이 없다	13명 / 8.13%

7) 강북구 지역 내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표 35>에 나타나 있듯이, '긴급돌봄, 보육서비스 확대'(50명, 31.3%), '가족돌봄휴가지원'(49명, 29.4%), '유연근무제 확대(47명, 29.4%), '초등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44명, 27.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북구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고 맞벌이 가정의 초등 자녀 돌봄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표 35> 강북구 지역 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사업 (2가지 선택)
(N=160)

문항	항 목	N (%)
강북구 지역 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사업 (2가지 선택)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확대	38명 / 23.75%
	긴급돌봄·보육서비스 확대	50명 / 31.25%
	지역아동센터 확충	22명 / 13.75%
	24시간 보육기관 확충	21명 / 13.1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명 / 12.50%
	가족돌봄휴가 지원	49명 / 30.63%
	유연근무제 확대 (예.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47명 / 29.38%
	초등 돌봄을 위한 센터 설치	44명 / 27.50%
	각종 수당 지급액 확대	26명 / 16.25%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명 / 1.88%

8) 강북구 맞벌이 가정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을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한 요인

현재 강북구 내 맞벌이 가정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을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36> 참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75명, 46.9%), '양적인 확대'(47명, 29.4%) 순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가 보다 많이 확대될 필요성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6> 강북구 맞벌이 가정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을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한 요인

(N=160)

문항	항 목	N (%)
강북구 맞벌이 가정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을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한 요인	양적인 확대 (돌봄시설 수 증가)	47명 / 29.38%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75명 / 46.88%
	공동체 육아 지원	17명 / 10.63%
	홍보	13명 / 8.13%
	현재 만족함	5명 / 3.13%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명 / 1.88%

9)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토론회 참여 의사

마지막으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열린마루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토론회에 참여할 의사를 질문한 결과(<표 37> 참조), '시간이 맞으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79명, 49.4%)고 대답하여,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 만들기 등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토론회 참여 의사

(N=160)

문항	항 목	N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 만들기' 토론회 참여 의사	적극 참여하겠다	10명 / 6.25%
	시간이 맞으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79명 / 49.38%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다	64명 / 40%
	전혀 관심이 없다	7명 / 4.38%

<출처>

김수아(2020). 강북구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특성과 가족사업 요구.

성신여대 2020하계학부생연구프로그램 보고서.

성경아(2020).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요구: 코로나

19 확산 상황의 서울시 강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2020

하계학부생 연구프로그램 보고서.